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022, September. 10(3): 97-103
pISSN: 2288-6079 / eISSN: 2635-6538
https://doi.org/10.33615/jkohs.2022.10.3.97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민희홍[1] · 이혜진[2‡]
[1]대전 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2]영산대학교 웰에이징 기초과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and Ego Resilie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Dental Hygiene Students

Hee-Hong Min[1], Hye-Jin Lee[2‡]
[1]Dep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2]Institute of Basic Science for Well-Aging, Youngsan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Objectives: The aim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and ego resilience on the abi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to maintain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rch 1 and March 31, 2021,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189 dental hygiene students who were selected using convenience sampling.

Results: Abili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athic ability (r = 0.338, $p < .01$) and ego resilience (r = 0.649, $p < .01$).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ego resilience (β = 0.521, p = 0.001) was a significant predictor and accounted for 45.8% of abili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clusions: The ability to conduct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eds to be increased in dental hygiene students by conducting an efficient program to teach ego resilience.

Key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empathic ability,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eceived on Aug 05, 2022. Revised on Aug 26, 2022. Accepted on Aug 29, 2022.

‡ Corresponding Author (E-mail: onlyhelena@hanmail.net)

Ⅰ. 서론

모든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유연한 적응과 대처 능력들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다. 치과의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에게는 기술적인 업무와 더불어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1]. 특히, 사회 초년생인 신입 치과위생사들은 업무 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더욱 호소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2]. 대학생 시기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이라 할 만큼 가치관 확립과 심리·사회적 발달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3]. 졸업 후 치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미리 습득할 수 있다면, 치위생과 학생들이 취업 시 어려움 없이 직장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와 더불어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상황에 적절한 반응과 대응을 하는 공감능력은 유대감 및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대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역량이라 할 수 있다[4,5]. 치과의료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환자의 성향 파악을 통한 적절한 응대와 공감은 진료과정 중 신뢰감과 라포 형성으로 이어져 진료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공감은 사회생활 중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갈등의 해소와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여[6], 선행연구에서는 대학교육 중 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감능력 향상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5,7].

환자응대시 공감능력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융통성 있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자아 탄력성에 대하여 Block와 Kremen[8]

Copyright ⓒ 2022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은 개인의 자아통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에 적응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내는 능력이라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짧아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게 되고, 갈등상황에 쉽게 적응하게 한다고 하였다[9].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직무만족도가 높아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0], 대인관계능력이 높아 대인관계에 문제를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단순한 의료기술과 업무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치과의료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에게 다양한 환경에 따른 포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인관계를 절충하는 중간관리자로써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12]. 치위생과의 교육과정 특성상 국가시험 위주의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대처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교육은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13] 다수의 대학에서 교육 시간을 편성하고 있다[14].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공감 능력[3], 사회적지지[15],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12], 감성지능과 자아탄련성[11]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과 관계를 융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충청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 1, 2, 3학년 189명을 임의 표본추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설문 작성에 동의 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부나 중단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설명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4에 의해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0.15, 예측변수(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일반적 특성)를 10개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본 최소인원은 172명이었고, 최종분석은 189명이었다.

2. 연구방법

일반적 특성 8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공감능력 28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측정기준은 5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능력은 Warner[16]가 개발하고 정[17]과 장[18]이 수정・보완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정 문항은 역 환산(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1점) 하였으며, Cronbach's α는 0.902이었다.

2)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19]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4영역 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는 0.746이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14문항은 Block와 Kremen[8]이 개발하고, 유 등[20]이 번역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성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 문항은 역 환산(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1점)하였으며, Cronbach's α는 0.841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24.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 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검증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고,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정도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및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3.76점이었고, 공감능력은 3.23점이었으며, 자아탄력성 3.41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대인관계능력은 동아리 가입이 되어 있고(p<.05), 대학 생활에서 만족하는 경우(p<.001),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p<.001),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동아리 가입되어 있고(p<.001), 대학 생활에서 만족하는 경우(p<.001),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Unit: Mean±SD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Interpersonal relationship	18	2.56	4.94	3.76±0.48
Empathic ability	28	2.43	4.57	3.23±0.32
Ego resilience	14	1.75	5.00	3.41±0.57

<Tabl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athic ability and ego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 or F(p*)	Empathic ability	t or F(p*)	Ego resilience	t or F(p*)
Age	<19	71	3.23±0.32	0.374	3.46±0.54	0.652	3.79±0.49	0.268
	20	56	3.26±0.33	(0.689)	3.41±0.64	(0.522)	3.76±0.47	(0.765)
	≥21	62	3.21±0.33		3.35±0.56		3.73±0.50	
Grade	1	36	3.83±0.47	0.005	3.23±0.26	0.397	3.44±0.59	0.580
	2	79	3.76±0.46	(0.995)	3.23±0.36	(0.673)	3.44±0.54	(0.561)
	3	74	3.73±0.51		3.23±0.31		3.36±0.60	
Club	Yes	43	3.90±0.43	2.065	3.22±0.25	-0.176	3.53±0.61	1.561
	No	146	3.72±0.49	(0.040)	3.23±0.34	(0.860)	3.38±0.56	(0.001)
Satisfaction in school	Dissatisfaction	8	3.47±0.57[a]	14.479	3.24±0.25	2.316	2.89±0.81[a]	13.669
	Average	102	3.63±0.47[ab]	(0.001)	3.18±0.30	(0.102)	3.28±0.49[ab]	(0.120)
	Satisfaction	79	3.97±0.47[b]		3.29±0.35		3.63±0.56[b]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5	3.31±0.63[a]	19.169	3.16±0.25	1.976	2.79±0.99[a]	14.042
	Average	127	3.65±0.46[a]	(0.001)	3.20±0.32	(0.141)	3.31±0.51[b]	(0.001)
	Satisfaction	57	4.06±0.39[b]		3.30±0.35		3.70±0.55[b]	
Subjective health	Bad	7	3.29±0.31[a]	9.339	3.26±0.12	0.519	2.90±0.60[a]	4.751
	Average	110	3.69±0.47[b]	(0.001)	3.21±0.25	(0.596)	3.37±0.58[ab]	(0.001)
	Good	72	3.92±0.47[b]		3.26±0.42		3.53±0.53[b]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124	3.72±0.45	1.328	3.20±0.31	2.445	3.35±0.54	1.749
	Aptitude	29	3.91±0.44	(0.267)	3.35±0.28	(0.065)	3.595±0.50	(0.158)
	Inducement	24	3.81±0.64		3.30±0.45		3.515±0.83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12	3.81±0.50		3.13±0.22		3.425±0.38	

* by the t-test or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y Scheffe' test at α=0.05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고, 대학생활에 만족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능력과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과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공감능력(r=0.338, p<.01), 자아탄력성(r=0.649, p<.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r=0.403, p<.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2.105으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824-0.978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13.228, p<0.001), 다중 공선성 지수는 10보다 작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공감능력 및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위생과 학생에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 더미2(β=0.145, p=0.036), 자아탄력성(β=0.521, p=0.001)으로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으며, 설명력은 45.8%이었다.

<Table 3> Cor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athic ability, ego resilience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athic ability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Empathic ability	0.338**	1	
Ego resilience	0.649**	0.403**	1

**p<.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765	0.282		6.248	0.001		
Age_dummy1 (<19/20)	-0.039	0.077	-0.039	-0.511	0.610	0.482	2.073
Age_dummy2 (20/≥21)	0.009	0.070	0.009	0.129	0.898	0.618	1.619
Grade_dummy1 (1/2)	0.091	0.077	0.074	1.170	0.244	0.725	1.379
Grade_dummy2 (2/3)	0.008	0.072	0.009	0.117	0.907	0.540	1.853
Subjective health_dummy1 (bad/average)	-0.202	0.152	-0.079	-1.326	0.187	0.811	1.233
Subjective health_dummy2 (average/good)	0.102	0.058	0.103	1.748	0.082	0.830	1.205
Satisfaction in school_dummy1 (dissatisfaction/average)	-0.308	0.264	-0.103	-1.168	0.244	0.374	2.677
Satisfaction in school_dummy2 (average/satisfaction)	0.153	0.072	0.145	2.118	0.036	0.612	1.634
Satisfaction in major_dummy1 (dissatisfaction/average)	0.297	0.217	0.307	1.371	0.172	0.057	17.425
Satisfaction in major_dummy2 (average/satisfaction)	-0.256	0.224	-0.262	-1.146	0.253	0.055	18.177

<Table 4> Continued.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lub_dummy (yes/no)	-0.064	0.067	-0.056	-0.963	0.337	0.854	1.172
Empathic ability	0.137	0.089	0.092	1.543	0.125	0.816	1.225
Ego resilience	0.439	0.054	0.521	8.135	0.001	0.702	1.424
R^2=0.496, adjusted R^2=0.458, F=13.228(p<0.001), Durbin-Watson: 2.105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Ⅳ. 고찰

본 연구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통하여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3.76점으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3]의 연구 3.75점과 비슷한 결과 보였으며, 이 등[19]의 연구 3.44점과 한과 김[11]의 연구 3.5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은 중간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민[2]의 연구에서 상당수의 신입 치과위생사들은 취업 후 업무 중 환자나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전 다양한 성격유형별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통하여 취업 후 대인관계에서 겪게 될 곤란한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3.23점으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김[4]의 연구 3.78점과 이[3]의 3.49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채[5]의 연구 3.69점보다 낮게 났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관점수용과 가상상황에서 타인이 되어보는 상상하기 및 타인에 대한 온정과 관심을 갖는 것으로[19] 추후 치과의료 현장에서 구강건강 상태가 불편한 환자를 응대하게 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서비스' 교과 및 비교과 시간을 활용한 임상사례분석이나 역할극을 통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인관계, 호기심, 감정통제, 활력성, 낙관성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은 3.41점으로 한과 김[11]의 연구 3.48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등[1]의 3.30점보다는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최와 이[22]연구 3.92점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재되어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 정서적 및 인지적 조절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긴장과 인내의 수준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낯선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하다[8]. 그러므로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대학의 학사운영 부서인 학생코칭센터 주관의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스트레스검사, 스트레스 대처능력 교육 및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대인관계능력에서는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고, 전공과 대학 생활에 만족하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와 조[13]의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좋고,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높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채[5]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감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공과 대학 생활에 만족할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3]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5]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고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고, 대학 생활에 만족하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과 김[11]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높고, 부모님이 주된 양육자이며 종교가 있는 경우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지[23]등의 연구에서는 학년과 전공 만족도가 높은 연구대상자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전공 및 대학생활 만족과 같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련성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능력과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공감능력(r=0.338, p<.01), 자아탄력성(r=0.649,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3]와 정[7]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공감능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등[1]과 채[5]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자아탄력성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공감능력 및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 자아탄력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이는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가장 큰 영향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김 등[24]은 셀프리더십과 자존감이라 하였고, 오와 황[6]은 공감능력이라 하였으며, 김과 김[4]은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라 하였다. 또한, 한과 김[11], 이[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대인관계능력의 주요변인으로 검증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 및 학과,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차원으로는 학생들의 성향 파악을 통한 대인관계능력과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학과 차원에서는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를 통한 일회성의 특강보다는 현장감 있는 집단교육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들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요인 파악을 통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전・충청 일부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대인관계능력은 3.76점이었고, 공감능력은 3.23점이었으며, 자아탄력성 3.41점으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능력은 동아리 가입 유무(p<.05), 전공 만족도(p<.001), 대학생활 만족도(p<.001), 주관적인 건강 상태(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동아리 가입유무(p<.001), 대학생활 만족도(p<.001), 주관적인 건강상태(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 대인관계능력과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공감능력(r=0.338, p<.01), 자아탄력성(r=0.649, p<.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r=0.403, p<.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 자아탄력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으며, 설명력은 45.8%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치과의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수업과 비교과 수업 중 적절한 적용을 통한 치과의료 현장 적응 효과에 대한 환류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REFERENCES

1. Lee OS, Gu MO, Kim MJ: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3902-3910, 2015.
DOI: 10.5762/KAIS.2015.16.6,3902
2. Lee HJ, Min HH: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new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9(5): 803-811, 2019.
DOI : 10.13065/jksdh.20190068

3. Lee SL: Convergence relationship of self-esteem,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7): 87-92, 2019.
DOI: 10.15207/JKCS.2019.10.7.0874
4. Kim SJ, Kim HH: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3(3):304-313, 2013.
5. Chae MO: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95-103, 2016.
DOI: 10.5762/KAIS.2016.17.5.95
6. Oh JH, Hwnag YH: The effects of empath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3):196-203, 2018.
DOI: 10.7586/jkbns.2018.20.3.196
7. Chung MS: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2014.
DOI: 10.5977/jkasne2014.20.2.33
8.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349-361, 1996
9. Kim SY: The effect of nurse's ego-resilience on stress response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4.
10. Lee KH, Song JY: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1):17-25, 2010.
DOI: 10.11111/jkana.2010.16.1.17
11. Han JH, Kim KE: Interpersonal skills caused b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15(6):746-752, 2015.
12. Kim SJ, Kim HH: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3(3):304-313, 2013.
DOI: 10.17135/jdhs.2015.15.6.746
13. Park JH, Lee YH: Influence of Dental Hygienists' Core Competencies on Job Performanc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7(2):142-149, 2017.
DOI: 10.17135/jdhs.2017.17.2.142
14. Kim KM, Kim SI, Choi JS, et al: Dental communication training courses in dental hygiene schoo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1):123-132, 2017.
DOI: 10.13065/jksdh.2017.17.01.123
15. So MH, Cho YY: Relations between interpersonal ability, social support,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7(3):117-129, 2016.
16. Warner J: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profile. Facilitator`s Guide. Amherst, HRD Press, pp.1-57, 2005.
17. Chung T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managers' life-long education coaching leadership and its member'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2011.
18. Jang HS: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relationship style,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in adolescence. master'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06.
19.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The Bulletin of the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10:85, 1980.
20. Yoo SK, Hong SH, Choi BY: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393-408, 2004.
21. Lee JR, Kim HJ, Ko HJ: The effect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1): 39-47, 2014.
22. Choi HJ, Lee MS : The association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among dental hygiene freshmen.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9(2):129-138, 2013.
23. Ji EJ, Bang MR, Jeon HJ: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571-579, 2013.
DOI: 10.5977/jkasne.2013.19.4.571
24. Kim MA, Kim JY, Kim EJ: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B):1103-1113, 2014.